

일본농업신문의 해외수출사례관련기사

12.2일자 일본농업신문(1면)에서는 농업생산법인의 수출사례를 소개하면서 농업생산법인의 해외수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게재. 구체적인 사례는 이하 2개 업체로

- (흑마늘)아오모리현 오이라세 마을의 농업생산법인 시라사키 청과는 마늘을 숙성시킨 흑마늘을 유럽 및 아시아 등 10개국이상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14년도 수출액은 약 2,300만엔. 전년대비 300만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동 법인에 따르면 완전무첨가 식품으로 청과물과 다르게 유통기한이 1년으로 길기 때문에 수출에 강점이 있음. 해외에서의 소매가격은 일본의 1.5~3배. 수송비 및 중간업자의 유통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국내시장과 같은 정도의 수익이 확보 가능. 대표는 연 10회 이상은 해외에 직접상담을 위해서 출장을 간다고 함.
- (밀감쥬스)온주밀감 쥬스를 수출하는 와카야마현 아리타시의 하야토 과수원. 동 법인의 주력상품은 과피를 벗겨 박피상태로 착즙하는 '마시는 밀감'으로 해외산 오렌지와는 다른 농후한 맛이 있어, 인기가 있음. 동원의 수출담당자는 무첨가이면서도 장기보존이 가능한 쥬스라는 점이 해외에서 인기가 높으며, 안전한 일본산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고 답변. 주요수출국은 대만, 홍콩의 고급 슈퍼가 중심으로 '14년도 수출액은 약 730만엔으로 전년 약 5배 성장을 했다.

■ 시사점

- 흑마늘이나 밀감 주스 등 일본에서도 전혀 새로운 수출상품이 아니고, 이미 한국에서는 관련 유사상품의 생산법인 및 수출업체가 이미 수출을 많이 하고 상황으로 기사내용은 색다른 것이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지방지 및 농업, 식품 활자매체에서 이러한 우수사례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으며, 이는 농림수산성 일본농산물의 수출지원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언론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 등을 전파함으로서 관련업계의 수출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음. 다만 일본 농업전문 일간지(농협단체 연관)를 통한 정책홍보성 기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례로 기사화 되는 것으로 보면, 일본 농림수산성의 수출지원 정책(TPP대책 일환 포함)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에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이런 정책홍보성 기사가 많이 보도될 것으로 보임

※ 자료관련 문의 : 도쿄지사 이세호(81-3-5367-6694)